

방산 윤정기의 기행시에 나타난 두 가지 경향

— 역사유적의 경물화와 비애의 서정화 —

이 철 희 *

<目次>

- | | |
|-----------------------|--------------------|
| I. 머리말 | III. 방산의 기행시에 나타나는 |
| II. 방산의 여행에 대한 오해와 해명 | 두 가지 경향 |
| | IV. 맺음말 |

<국문 초록>

다산 정약용의 외손자이자 제자인 방산 윤정기는 평생 전국을 방랑하거나 혹은 현지답사를 하며 우리나라 역사지리지인 『동환록』을 저작하고, 역사유적을 다룬 회고시를 지은 것으로 알려져 왔다.

이 글은 방산의 시문집을 검토하여 방산이 평생 전국을 여행하였다는 통설이 고향인 강진을 왕래하며 지은 작품에서 기인한 오해였음을 밝히고, 이 여정에서 지은 기행시를 분석하여 두 가지의 특징적 경향을 추출하였다.

첫째는 역사유적을 對句로 구사하여 懷古詩와 유사한 면모를 보여주지만, 역사적 의미가 부여되지 않는 경물로 존재한다는 점이고, 둘째는 悲哀의 정조가 일관되게 표현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역사유적 또한 비애감을 조성하는 역할을 하는 특징을 보여준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기행시의 특성은 방산이 우리나라의 역사지리에서 소재를 취해

*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연구교수 / silsi94@hanmail.net

시를 쓸 것을 주장한 다산의 朝鮮詩論을 계승하면서도, 자신의 처지와 정감을 진솔하게 표현하는 서정성을 더욱 강화시켜 나갔음을 의미한다.

【주제어】 윤정기, 『동환록』, 기행시, 회고시, 역사유적, 비애, 정약용, 다산 학단

I. 머리말

舫山 尹廷琦(1814-1879)는 茶山 丁若鏞의 외손이자 제자로서 시경학과 역사지리학분야에서 다산학의 계승자로 인정받고 있다.¹⁾ 한편 『丹楓詩卷』을 연경에 보내어 청나라 문인 周棠으로부터 서문과 비평을 받았는가 하면, 조선후기 대표적인 시선집인 『大東詩選』과 『朝野詩選』에도 비교적 많은 편수가 선정되어 있어, 시문학분야에서도 주목을 받고 있다.

기존 연구에서는 『東環錄』에서 보여준 역사지리에 대한 학문적 열정이 懷古詩와 竹枝詞의 작품으로 구현되었으며, 이러한 점은 민족의 주체성을 강조한 다산의 시학을 계승한 것으로 평가하였다.²⁾ 아직 연구의 초기단계이지만 시문학 분야에서도 茶山學의 계승적 면모가 조명되기 시작한 것이다.

-
- 1) 방산의 대표적 저술인 『시경강의속집』과 『동환록』이 다산의 『시경강의』와 『시경강의보유』 및 『아방강역고』를 계승, 보완하였다는 것이 학계의 정평이다. 吳世昌(1864-1953)과 金奭準(1831-1915)은 방산이 다산으로부터 학문과 문장을 전수받았음을 증언하였고, 또한 방산 스스로도 師弟의 예를 갖춘 제자임을 밝힌 바 있다. 吳世昌, 『槿域書畫徵』, <尹廷琦>條, “文章傳茶山衣鉢”; 金奭準, 『紅藥樓續懷人詩錄』, <尹廷琦>條, “茶翁曾授學, 文源自醴泉, 研經陋巷裏, 搔首望青天, 易說東環錄, 瞻核後必傳.”; 윤정기, 『醉綠堂詩集序』, “余於公親串也, 而公於余外家, 又有丈席之禮.” 참조.
 - 2) 박준호, 「방산 윤정기 문학연구」, 계명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92.; 「방산 윤정기의 금릉죽지사에 대하여」, 『한국학연구』 8집, 계명대, 1992.; 「방산 윤정기 시세계의 한 국면-회고시를 중심으로」, 『한문교육연구』 13집, 1999.; 이신영, 「방산 윤정기의 회고시에 대한 고찰」,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

그러나 죽지사과 회고시에 해당하는 작품은 강진의 풍속을 다룬 「金陵竹枝詞」 22수와 영남지방의 역사유적 등을 다룬 「橋南懷古」 10수를 비롯한 몇 편의 작품에 불과하다. 방산 시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가 진척되기 위해서는 연구대상을 확대시켜 보다 다양한 접근과 이해가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주목되는 것은 ‘기행시’이다. 방산의 시집에서 양적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뿐더러 그의 삶과 학문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방산은 평생 전국을 ‘방랑’하거나 혹은 ‘현장답사’를 하였고, 이 과정에서 『동환록』이 저술되었다는 것이 하나의 통설처럼 인용되고 있다.³⁾ 그러나 방산의 여행이 ‘방랑’인지, 혹은 ‘현장답사’인지, 여행의 범위를 ‘전국’이라 칭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하여 매우 불분명하게 논의되어왔다. 방산이 평생 어떤 여행을 하였는지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의 기행시를 검토해 보는 것이 순리일 것이다.

기존 연구에서 방산이 여행하며 지은 작품을 검토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그러나 작품의 대부분이 역사유적을 소재로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일방적으로 회고시로 다루었을 뿐, 기행시로는 주목하지 못하였고, 여행의 여정 또한 검토하지 못하였다. 이와 같이 기행시가 회고시로 다루어진 이유는 일단 연구자가 기행시와 회고시의 구분에 대하여 주의하지 못하였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기행시와 회고시가 밀접한 연관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기행시는 여행 중에 대면하는 각종 대상을 통하여 여행자로서의 감정을 표현한 작품들인데, 여행 중 역사유적을 만날 경우 회고시가 창작되기도 하였기 때문이다. 이 경우 기행시와 회고시의 구분이 모호해 지거나 양자의 양식이 결합된 형태가 나타나기도 하

3) 방산이 전국을 ‘방랑’ 또는 ‘답사’하였다는 주장은 가장 초기 연구인 박준호의 「방산 윤정기 문학 연구」(1992)로부터 시작하여 이해준의 「윤정기와 동환록」, 『동환록』, 원주문화사, 1993.; 박인호의 「동환록에 나타난 윤정기의 역사지리인식」, 『조선시대의 사회와 사상』, 조선사연구회편, 1998.; 이신영의 논문(2005)에 이르기까지 그대로 답습되었다.

는데, 작품의 내용이나 주제의식 등을 분석하여 그 성격을 밝혀야 한다.

이 글에서는 먼저 방산의 여행을 실증적으로 고찰하여, ‘방랑’이나 ‘현장답사’로 막연하게 인식되었던 방산의 여행을 보다 분명하게 규명하고, 이 여정에서 지어진 기행시의 특성을 조명해보고자 한다.

II. 방산의 여행에 대한 오해와 해명

방산의 문집을 살펴보면, 그가 평생 많은 여행을 하였다는 인상을 받게 되는데, 지방을 여행하며 지은 시가 많은 편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조선의 전 강역을 다룬 『동환록』의 저술은 그의 여행이 전국에 걸친 현장답사라는 인상을 강하게 심어준다. 기존 연구에서는 이런 인상에서 의거하여 정처없이 떠돈다는 의미를 지닌 ‘방랑’이나, 역사현장의 답사라는 의미를 부여한 ‘유람’이라는 개념으로 규정하였다. 즉, 방산이 일생동안 전국각지를 다녔으며, 이 과정에서 『동환록』이 저작되고 회고시가 창작되었다고 파악한 것이다.

이러한 주장이 또 하나의 근거로 삼는 것은 방산이 『동환록』의 自序에서 “각 나라의 고적과 군읍의 고적을 채록하고 시인들의 시를 조금 덧붙여서 한 부의 책을 만들었다.”⁴⁾라고 한 글이다. 기존 연구자는 방산이 직접 답사하여 고적에 대한 자료를 수집했다고 보았는데⁵⁾, 고적에 대한 옛 기록을 채집하여 기록했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 만약 방산이 직접 답사를 다녔다면 이 사실을 이렇게 간략하게 언급하고 말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다만 金奭準이 「舫山先生詩稿序」에서 “일전에 듣기를, 선생께서는 영

4) 윤정기, 『동환록』, 「自序」, “仍採各國之古蹟, 郡邑之古蹟, 畧附以騷人之詩, 輯成一部.” 윤정기의 자료는 『다산학단문헌집성』,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08.에서 인용하였다.

5) 박준호, 앞의 글, p.11.

남과 호남사이에 우거하시면서 몸소 명소를 찾아다니고 고적들을 모으셨다”라고 말한 것이 오히려 하나의 근거가 될 듯하다.⁶⁾ 그러나 방산이 1860년에 강진으로 낙향하여 白鶴山 아래 집을 짓고 4년간 거주한 것이 외에 다른 지방에 거처한 사실은 확인할 수 없다. 김석준이 1870년 서문을 지을 즈음 방산을 처음 만났으며, 또한 전해들은 이야기를 옮긴 것이어서 전적으로 신빙할 수 있는 말이라고 보기 어렵다. “영남과 호남 사이”라는 말은 방산의 작품 중 영남 지방의 역사유적을 읊은 「교남회고」와 호남인 강진의 풍속을 읊은 「금릉죽지사」를 염두에 두고 말한 것으로 여겨진다. 대개 회고시는 작자가 유적지에 직접 가서 보고 느낀 감회를 읊는 작품이라는 점에서 김석준은 방산이 영남지방을 다녀왔다고 생각했을지 모른다. 그러나 「교남회고」외에 방산이 영남지방에서 지은 시는 단 한 편도 남아있지 않다. 아무래도 방산이 영남지방을 여행하며 「교남회고」를 지었다고 보는 것은 무리이다. 방산의 『동환록』에는 柳得恭의 시가 가장 많이 실려 있고⁷⁾ 「교남회고」역시 유득공의 「二十一都懷古詩」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⁸⁾ 유득공의 「이십일도회고시」는 우리나라 강역에 존멸하였던 21국의 도읍지 16곳을 칠언절구의 회고시체로 읊은 작품인데, 자신이 직접 가보지 않은 도읍지도 마치 직접 눈으로 보고 있듯이 지은 특성을 보여준다.⁹⁾ 방산도 유득공과 같은 방식을 취하여 각종 문헌자료와 상상력을 통하여 「교남회고」를 지었을 가능성이 크다.

현재 남아있는 방산의 시문집에는 방산이 전국을 돌아다녔다는 별도

6) 金奭準, 「舫山先生詩稿序」, “曩聞, 先生僑于嶺湖間, 身履名區, 蒐羅古蹟, 凡山川草木鳥獸地志, 所秘者, 皆瞭然參證, 靡遺纖毫.”

7) 이신영, 앞의 글, p.13.

8) 이철희, 「방산 윤정기 문학에서 시와 역사의 만남」, 『강진다산실학연구원 제6회 학술세미나 <방산 윤정기의 작품세계와 다산학 계승의 계보 탐색> 발표논문집』, 2009. (이 글은 『다산과 현대』 2집, 연세대학교 강진다산실학연구원, 2009.에 게재된다.)

9) 이철희, 「18세기 한중 문학 교류와 유득공의 <이십일도회고시>」, 『동방한문학』 38집, 동방한문학회, 2009, 참조.

의 기록은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여행의 행적은 기행시를 통하여 살펴볼 수밖에 없다. 방산의 여행은 그의 시집 속에 대부분 드러나 있는데, 현재 전하는 두 종류의 시집은 편집방식과 내용에는 차이가 있으나, 여행의 여정에 있어서는 별다른 차이가 보이지 않는다.¹⁰⁾

『舫山先生遺稿』는 총 6 개 부문으로 나뉘어있는데, 중국으로 보내 비평을 받은 <蘭西批評>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자신이 거주지에 따라 분류하여, <漢上題襟錄>, <白鶴山史實錄>, <紫霞山莊集>, <黃花屋間話>, <春星堂紀事>로 편집되어 있다. 이중 서울지역외의 지방을 여행하며 지은 시는 네 부분에 실려 있다. <紫霞山莊集>에는 개성을 유람하며 지은 「碧蹄店」, 「暮入松京」, 「滿月臺」, 「渡臨津」 등 4편의 시가 있고, <白鶴山史實錄>에는 강진에 거쳐하는 동안 해남, 완도 장흥 등을 왕래하며 지은 시가 있으며, 이외 지방에서 지은 시는 <漢上題襟錄>과 <春星堂紀事>에 대부분 실려 있다. 두 편은 각기 편집체제가 다른데, 전자는 창작순대로 엮은 것으로 보이며 후자는 시체별로 분류되어 있다. 먼저 여정을 확인할 수 있는 작품을 뽑아 문집에 실려 있는 순서대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漢上題襟錄>

「公州途中」, 「宿羅州潏江」, 「過素沙野」, 「過草浦」, 「曉發全州」, 「過泰仁」, 「踰蘆嶺」, 「過羅州」, 「白鶴洞客中寒食」, 「耽津縣途中」, 「農山別墅」, 「遊龍穴」, 往相公里」, 「朝發相公里還向琴城【海南】」, 訪橘園草堂舊址」, 「美黃寺滯雨」, 「影沈臺次板上韻」, 「金陵官閣與洪孝廉話別【余將北還】」

<春星堂紀事>

「晚入華城」, 「金陵官閣共洪使君飲」, 「途中口號【將向海月樓】」, 「渡錦江」,

10) 방산의 시문집은 1939년경 후손에 의하여 간행된 『舫山先生遺稿』(석인본, 3권 2책, 이 책은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원에서 2008년도에 간행한 『다산학단 문헌집성』에 재수록 되어 있다.)과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舫山遺稿』(필사본 4권 2책)가 전하는데, 편집체제와 내용에 차이가 있다.

「過素沙坪」, 「踰蘆嶺」, 「入耽津縣途中口號」, 「早發相公里還向琴城」, 「咏頭輪山頂孤石」, 「北歸途中口號」, 「渡溧水」, 「曉發湖南行」, 「晚過公州」, 「過恩津」, 「入全州」, 「踰蘆嶺」, 「春日鶴洞丙舍」, 「入耽津縣途中口號」, 「登將軍峰」, 「農山別墅」, 「閏三月遊龍穴」, 「宿琴城館」, 「冒雨入相公里宿丙舍」, 「朝發相公里還向琴城」, 「偕族弟廷杰國彬遊大菴寺」, 「還寺拈韻」, 「海月樓次板上韻」, 「金陵官閣與洪蘭坡話別」, 「遊萬德山白蓮寺」, 「留別鶴洞山館」, 「渡錦江」, 「渡溧水」

<漢上題襟錄>에서 세 번째로 제시한 「過素沙野」부터 “나는 장차 북으로 돌아갈 것이다(余將北還)”라는 附記가 붙은 「金陵官閣與洪孝廉話別」까지의 작품들은 한 차례의 여정 중에 지은 것으로 보이는데, 위 편차에 따라 여정을 재구성하면 다음과 같다.

[서울] → 素沙野(金烏坪) → 草浦(恩津) → 全州 → 井邑(泰仁) → 長城(蘆嶺) → 羅州 → 康津 → 海南 → 康津

<漢上題襟錄>에 나타난 여행은 서울에서 출발하여 그의 고향인 강진에 도착하였다가 해남을 들려오는 여정임을 알 수 있다. <春星堂紀事>의 작품은 시체별로 편집되어 있어 일정한 여정이 드러나 있지 않고, 華城, 公州, 錦江, 榮山江 등이 추가되어 있지만, 모두 <한상제금록>의 경우와 같이 서울과 강진을 왕래하거나 강진과 해남 일대의 일가친척을 방문하며 지은 작품임을 알 수 있다.¹¹⁾

기존의 논자들이 ‘오랜 방랑’이나 ‘전국을 유람’하였다는 인상은 바로 방산이 서울과 강진을 빈번히 왕복하며 지은 작품들에서 기인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방산은 전라남도 강진군 도암면의 項村에 세거하던 해남윤

11)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舫山遺稿』의 <春星堂紀事>는 창작순서대로 편집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강진으로 내려가는 여정이 그대로 드러나 있다. 편차대로 작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早發湖南行」, 「晚入華城」, 「過金烏坪」, 「晚過公州」, 「過恩津」, 「入全州」, 「曉發全州」, 「過泰仁縣」, 「踰蘆嶺」, 「過羅州」 등의 순으로 되어 있어 <漢上題襟錄>의 여정과 대부분 일치한다.

씨의 한 일과에 속하지만, 조부 翁山 尹書有(1746-1821)가 사간원 정언을 역임하는 등 중앙관료로 진출하고, 퇴임 후 강진으로 낙향하지 않고 陽根의 歸漁村으로 이주하여 서울근교에 터전을 잡았다. 방산은 귀어촌에서 출생하였고, 16세 때 서울로 이주한 뒤에는 생의 대부분을 서울에서 활동한 서울사람이었다. 한편 강진은 방산 가계의 세거지로서 생활의 근거가 남아 있는 곳이었다. 증조 尹光宅은 과거를 포기하고 가산을 일으켜 “축적한 재산이 천만에 이르렀다”는 기록을 보면 방산의 경제적 기반이 강진에 있었음을 의미한다. 방산에게 강진은 선조의 묘소와 경제적 기반이 있는 곳으로, 지속적으로 서울과 강진을 왕래할 수밖에 없는 생활환경을 지니고 있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고향을 왕래한 여행이 방산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경국체제에 대한 강한 열망을 지니고 있었던 방산에게 강진으로의 귀향길은 전통 사대부들의 ‘귀거래’와는 달리 삶의 좌절과 관계된다. 방산은 다산의 아들인, 외숙 丁學淵의 주선 아래 權敦仁, 李明迪, 韓啓源, 崔遇亨, 尹定鉉, 金炳學 등 당대 명류인사들과 교류하며 포부를 키우고 있었지만 장년이 되도록 관직진출의 꿈을 이루지 못하였다. 1859년 정학연이 세상을 떠나자 한 해 뒤 바로 낙향한 것은 더 이상 서울생활에 희망이 없었음을 의미한다. 방산은 4년간 강진에서 머물렀는데, 낙향 후 3년이 지난 1862년에 지은 「베개머리에서 회포를 쓰다(枕上述懷)」라는 작품에서는 자신의 삶을 꼭두각시의 놀이마당에 비유하며, “등불 앞에 마흔아홉 해를 생각하니, 하나하나 모두가 늙은이의 애를 태운다.”라고 하여 서울생활에 깊은 회한을 표현하였고, 또 한편으로 “먼 곳으로 옮겨오니 집이라도 손님인 듯하다.”라고 하여 고향에 안착할 수 없는 심정을 고백하기도 하였다.¹²⁾ 방산에게 낙향생활은 번민이 삶이었으며, 4년 만에 다

12) 윤정기, 『筋山先生遺稿』 卷1, <白鶴山史實錄>, 「枕上述懷」, “百劫餘生閱傀儡場, 今吾問我我還忘. 移居遠地家如客, 業種好花閒亦忙. 書後古人來枕夢, 雁聲此夜滿江鄉. 燈前四十九年事, 一一都來悵老腸.” 이하 『방산선생유고』에서 인용할 경우 서명은 생략하고, 권수와 편명만을 제시한다.

시 귀경을 결정한 것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마지막 희망이 서울에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다시 서울로 올라온 뒤 방산은 1879년 삶을 마칠 때까지 서울을 떠나지 않았으며, 서울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자신이 직접 강진과 서울을 왕래해야만 했다.¹³⁾

방산은 서울과 강진의 거리가 8백80리라고 기록해 놓고 있다.¹⁴⁾ 일반인이 다니는 여정으로서의 우리나라 강역에서 가장 먼 거리에 속한다고 할 만하다. 이 먼 여정을 방산은 노년에 이르기까지 평생 오고갔으며, 그 과정에서 대부분의 기행시가 창작된 것이다.

Ⅲ. 방산의 기행시에 나타나는 두 가지 경향

1. 역사유적의 경물화

기존연구에서 방산의 기행시를 회고시로 다룬 원인 중에 하나는 작품의 대부분이 역사유적을 소재로 인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음의 「저물녘 공주를 지나며(晚過公州)」라는 작품을 통하여 역사유적이 어떤 방식으로 인용되는 지를 살펴볼 수 있다.

譙樓悲角動江關	망루의 슬픈 호각소리 강의 관문을 울리는데
江雪江風我路難	강에서 부는 눈바람은 내 앞길을 막아선다.
天勢遙連金馬渚	하늘의 기세는 아득히 金馬渚로 이어지고
卽今益山, 新羅置金馬渚郡	<small>[곧 지금의 익산이다. 신라는 금마저군을 두었다.]</small>
地形最壯碧雞山	땅의 형세는 碧雞山에서 가장 장엄하다.
卽雞龍山	<small>[곧 계룡산이다.]</small>
文周故國餘殘照	文周王 옛 도성 자락엔 낙조가 비추고

13) 이철희, 「<방산선생유고>해제」, 『다산학단문헌집성』3,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08. 참조.

14) 卷2, <春星堂紀事>, 「過恩津」 중 “二十八程”에 대한 自注에 “自京至耽津, 八百八十里, 此當爲二十八驛.”이라고 하였다.

百濟文周王, 徙郡熊津.[백제 문주왕이 군을 웅진으로 옮겼다.]
 仁貴前塵只遠灣 薛仁貴的 옛 자취는 저 멀리 港灣에 있다.
 唐滅百濟, 使薛仁貴爲熊津都督府, 鎮之.[당나라가 백제를 멸망시키고 설인귀로 하여금
 웅진도독이 되어 백제를 진압하도록 하였다.]
 百劫餘生重到客 백겁의 생을 돌아 다시 찾아온 객,
 朱顏蕉萃五年間 오 년 새 청춘의 얼굴은 초췌해졌다오.¹⁵⁾

위 시는 제목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공주를 지나며 느낀 감회를 표현한 작품인데, 옛 지명이나 유적지가 중심소재로 등장하고 있다. 먼저 ‘金馬渚’와 ‘碧雞山’과 같은 옛 지명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古號의 사용은 회고적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일조한다. 유득공은 금강산의 명칭에 대해 논하면서, “우리나라 郡縣과 산천의 이름은 이미 전대의 역사에 기재되어 있거나 혹은 옛 시인묵객의 說이 있는 뒤에야 시에 인용할 수 있다. 樂浪, 玄免, 臨屯, 帶方, … 鴨水, 淇水, 楊花渡 등과 같은 類의 명칭에는 주위를 돌아보며 懷古하는 뜻이 있기 때문이다.”¹⁶⁾라고 하여, 古號 자체가 과거역사에 대한 회상을 이끌어낸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이어서 웅진으로 천도한 문주왕과 백제 진압에 공을 세운 당나라 장수 설인귀를 등장시켜 공주를 하나의 역사유적지로 부각시킨다. 한 지역에서 그곳의 역사유적지를 주목하여 시 속으로 끌어들이는 점은 회고시와 유사한 면모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문주왕의 옛 도성’이나 ‘설인귀의 옛 자취’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설명이나 묘사가 없으며, 그에 대한 議論이나 감회 또한 전혀 표출되어 있지 않다. 다만 역사의 무상감을 담고 있는 공주 주변의 역사유적을 끌어들이 애상적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만들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위 시의 주제는 역사유적에 대한 감회에 있지 않고, 오 년 만에 다시 공

15) 卷2, <춘성당기사>, 「晚過公州」

16) 柳得恭, 『冷齋書種』, 古芸堂筆記 卷4, <金剛山>, “我東郡縣山川名, 已載前史, 或古之韻人說過, 然後方可入詩. 如樂浪·玄免·臨屯·帶方 … 鴨水·淇水·楊花渡之類, 是已有俯仰懷古之意故也.”

주를 방문하며 느낀 자신의 쇠약해진 모습과 그 감상을 표현하는데 있게 된다.

이러한 주제의식의 차이는 회고시임을 제목에 밝힌 「남한산성 서장대에서 회고하다(南漢西將臺懷古)」와 비교하면 분명하게 드러난다.

雪後樓舍遠出明	눈 내린 뒤 누각은 먼 산굴의 빛을 머금었는데,
漢陽歸客倚天晴	한양으로 돌아가는 나그네는 개인 하늘을 의지해 서있다.
寒雲雁下三田渡	찬 구름 기러기 내려앉은 삼전도
落日笳悲白濟城	해진 뒤 호가소리 구슬픈 백제성.
終古野塚荒草合	예로부터 들녘의 해자는 무성한 풀에 덮혀 있는데
祇今行役暮煙生	지금의 행궁 터엔 저녁연기 피어오른다.
穹碑遙點松坡路	끝이 둥근 비석 저 멀리 한 점의 점처럼 송과 길에 보이니
空抱春秋暗愴情	그저 춘추를 안고서 남몰래 슬픔에 잠긴다.

남한산성의 서장대에서 바라본 전경을 통하여 병자호란 당시 겪었던 삼전도의 치욕을 회상하며 그에 대한 감회를 읊은 작품이다. 서장대에서 바라본 삼전도, 백제성, 해자, 행궁 터 등의 역사유적이 당대의 역사에 대한 설명이나 묘사가 없이, 오직 눈앞에 보이는 경물로 묘사되어있어는 점은 앞서 살펴본 작품과 유사한 면모를 보여준다. 그러나 결말에서 ‘大清皇帝功德碑’를 지시하는 ‘둥근 비석’을 통하여 청나라에 항복한 병자호란을 환기시키고, “그저 춘추를 안고 남몰래 슬픔에 잠긴다.”라고 하여 尊周大義가 무너져 오랑캐에게 굴욕을 당한 치욕적 사건에 대한 감정을 암시적으로 표현하였다. 이로써 이 작품은 역사에 대한 감회를 표현한 회고시의 주제를 표명하게 된다. 이와 같이 역사유적지를 다룬 작품 중 「해남수營의 누대 위에서 날이 개여 조망하다(蓮營樓上晴眺)」, 「저물녘 송경에 들어가다(暮入松京)」, 「만월대(滿月臺)」, 「연주대(戀主臺)」 등은 모두 과거 역사에 대한 감회를 주제화한 것으로 회고시로 분류할 수 있다.

위에서 비교한 「저물녘 공주를 지나며」와 「남한산성 서장대에서 회고하다」는 주제에 있어서 기행시와 회고시의 뚜렷한 차이를 보여주지만,

역사유적이 모두 하나의 경물로 표현되는 공통점을 보여준다. 그러나 두 작품에 묘사된 경물이 지닌 역사성을 비교하면 차이가 존재한다. 「남한산성 서장대에서 회고하다」는 다수의 역사유적이 병자호란이라는 하나의 사건을 회상하도록 구성되어 있는 반면, 「저물녘 공주를 지나며」에 인용된 역사유적은 일정한 역사사건을 회상하도록 구성되어 있지 않고 그야말로 풍경의 하나로 묘사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점이 기행시와 회고시를 구별하게 하는 하나의 요소가 된다.

다음은 기행시의 성격을 지닌 작품 중에서 역사유적이 인용되고 있는 부분을 뽑은 것이다.

(가)

草殘麻貴荒營址 시든 풀 속에 麻貴의 황폐해진 진영터가 있고
萬曆丁酉, 麻提督貴, 大破倭寇於此[만력 년간 정유년에 제독 마귀가 이곳에서 왜구를 크게 이겼다.]

苔沒崔沖古寺碑 이끼에 묻힌 곳에 崔沖이 쓴 옛 절의 비석이 있다.¹⁷⁾
弘慶寺, 卽高麗追王安宗願刹, 崔沖撰碑文, 今路邊只有古碑.[홍경사는 바로 고려시대에 왕을 추모하고 종묘를 안정시키기 위한 원찰인데 최충이 비문을 지었다. 지금은 길가에 옛 비석만 있을 뿐이다.]

(나)

寒雲野迥將軍石 찬 구름, 넓은 들판에 장군석이 서있고
虎溪路邊石, 有宋徵失鏃痕, 人謂將軍石[호계 길가에 바위가 있는데 송징이 쓴 화살촉의 흔적이 있다.]

落日村荒孝子碑 해지는 궁벽한 마을에 효자비가 서있다.¹⁸⁾
城外有之[성 밖에 있다.]

(다)

樹迴陳璘孤島碧 숲에 둘러싸인, 陳璘의 외로운 섬은 푸르게 빛나고
壬辰之難, 天將陳璘留鎮古今島, 卽龍穴相望處[임진왜란 때, 명나라 장수 진린이 고금도

17) 卷1, <한상제금록>, 「過素沙野」.

18) 卷1, <백학산사실록>, 「入耽津城」.

에 진을 쳤는데 용혈에서 바라볼 수 있는 곳이다.]

苔滋天頂舊臺崇 이끼 덮인, 천정의 옛 대는 높이 솟아있다.¹⁹⁾

高麗僧眞靜國師天頂 隱居龍穴庵, 築凌虛臺·招隱亭. 今其石堦遺址尚存.[고려승 진정국사 천정이 용혈의 암자에 은거하면서 능허대와 초은정을 건축하였다. 지금은 그 축대와 터만 남아있다.]

위 시구들은 방산이 기행시를 지을 때 역사유적을 대구로 인용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준다. 그런데 대구의 짝을 이루고 있는 (가)의 ‘麻貴營址’와 ‘崔沖碑’, (나)의 ‘將軍石’과 ‘孝子碑’, (다)의 ‘陳隣孤島’와 ‘天正(正+頁)舊臺’ 등은 짝을 이루고 있는 두 유적 사이에 어떠한 역사적 연관성도 존재하지 않는다. 동일한 시기나 사건을 지시하거나 어떤 공통의 역사의식을 불러일으키도록 구성되어 있지도 않다. 다만 한 지역의 역사유물이란 점이 대구를 이룬 동기라고 할 수 있다. 각각의 역사유적 또한 숲에 둘러싸여 있거나, 이끼에 묻혀있거나, 찬 구름이나 넓은 들판, 또는 석양이 지는 배경 속에 존재할 뿐, 어떠한 역사적 맥락의 의미를 부여받고 있지 않다. 이러한 현상은 역사유적이 역사적 의미로부터 벗어나 하나의 풍경으로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방산은 산수자연의 경관으로 조성할 수 있는 것과는 다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역사유적이라는 특별한 경물을 포착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위에 인용한 시들에서 한 가지 주목되는 점은 시의 행간에 自註가 많이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방산은 역사유적이나 옛 지명을 인용하면서 그에 대한 설명을 자주로 기재해 놓고 있는데, 자주로 기재는 방산의 시의 전반적 특성으로 거론된다. 특히 「진홍왕복수비가」와 「교남회고」, 「금릉죽지사」에는 역사지리와 관련된 꽤 많은 분량의 자세한 설명을 기재되어 있어, 『동환록』을 저술한 그의 학문적 경향과 일치하는 면모를 보여준다. 이에 대하여 기존연구에서는 「교남회고」에 대하여 “심하게 말하자면 그의 관심이 문학에 있었는지 역사에 있었는지 구별

19) 卷1, <한상제금록>, 「遊龍穴」.

하기 어려울 정도”라고 평하기도 하였고,²⁰⁾ 또는 고증학의 영향으로 파악하기도 하였다.²¹⁾ 그러나 위에 예시된 자주 내용을 살펴보면 역사지리의 내용을 간략하게 인용한 형태에 불과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자주 내용은 기행시에서 역사유적이 하나의 경물로 인용되고 있다는 사실과 연관시켜 이해할 수 있다. 방산이 시에서 표현하고자 하는 바가 역사에 대한 의문이나 고증적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교남회고」나 「금릉죽지사」와 같이 역사지리의 내용을 직접 다룬 작품에 기재되어 있는 많은 분량의 자주 역시 전문적 지식이나 고증학으로 운위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점은 유득공의 『이십일도회고시』가 ‘고증적 경향의 시’로 오인되어온 점과 연관된다. 『이십일도회고시』에는 우리나라 역사지리에

20) 박준호, 「방산 윤정기 시세계의 한 국면-회고시를 중심으로」, 『한문교육연구』 13집, 1999, p.370.

21) 이신영, 앞의 논문, pp.12-22. 이 글에서는 조선후기 회고시의 특성이 고증적 성향에 있다고 보고 있는데, 입론의 근거를 유득공을 비롯한 四家의 시에 대한 이경수의 연구에 두고 있다. 이경수는 <유득공의 회고시와 袁枚>라는 장에서 역사유적을 읊은 유득공의 초기 작품이 죽지사나 공사와 가까운 것으로 왕사정의 시풍과 유사한 면모를 보여주는데, 『이십일도회고시』에 와서는 왕사정의 시풍으로부터 벗어나 회고시 또는 영사시의 경향을 띠게 되며, 이러한 변화의 한 원인으로 원매의 회고시로부터 받은 영향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하였다. 물론 논자 스스로 하나의 고려 사항으로 제기한 것이지만 논거 자체에 적지 않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예로 든 원매의 작품 「博浪城」 등은 모두 7언 율시로서 絶句로 지은 『이십일도회고시』와 영향관계를 논하기에는 부적절하며, 더 나아가 당시 四家들이 수록한 원매의 몇 작품에 근거하여 영향관계를 논한다는 것 자체가 무리이다. 1778년 『이십일도회고시』를 창작할 당시 이미 원매의 존재에 대해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보다 1년 전인 1777년에 편찬한 『中州十一家詩選』에는 원매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19년 뒤인 1796년에 편찬한 『並世集』에 원매의 시가 기재되어있다는 사실을 참조하면 더욱 그러하다. 또한 유득공 등 四家詩의 고증적 경향을 논하면서 사가를 고증학자로 볼 수 있다고 하였는데, 이들의 학문적 성격을 고증학이라 칭할 수 있는지, 과연 『이십일도회고시』를 ‘고증적 경향의 시’로 규정할 수 있는지 재검토해야한다.(이경수, 『漢詩四家の清代詩 수용 연구』, 태학사, 1995, pp.151-158. 참조.)

대한 상세한 설명이 자주로 기재되어 있는데, 고증적 관점에서 집필된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역사지리에 익숙하지 않은 초학자나 중국 측 독자들을 위해 붙인 설명이기 때문이다. 자주の内容은 모두 중국의 역사서나 우리나라 문헌에서 절취한 내용을 엮은 것으로 유득공의 개인적 의견이 개입되어 있지 않다. 이와 같이 사료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중시한 자주의 기재 방식은 당시 대두되던 고증학에 부응하기 위한 시도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시작품이나 자주의 내용이 고증학의 내용을 담고 있다는 주장은 작품의 실상에 부합하지 않는 지나친 평가라고 할 수 있다.²²⁾

방산의 시집에 기재되어 있는 자주 역시 같은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 방산 역시 『丹楓詩卷』을 연경에 보내어 서문과 비평을 받았던 바, 유득공의 경우와 같이 한중 문화 교류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지니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즉 자기 저작의 독자층을 중국으로까지 확대시켜 인식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았을 때, 방산의 자주 역시 우리나라 역사지리에 익숙하지 않은 중국 측 독자들을 염두에 두고 기재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

앞서 살펴본 작품에서 볼 수 있듯이 역사유적을 소재로 활용하는 경향은 역사지리에 대한 전문저작을 남긴 학자적 태도가 반영되어 있는 것임은 분명하다. 그렇다고 시작품의 성격을 그의 학자적 태도에 귀속시켜 이해하는 것은 시의 독자성을 경시할 위험성을 안고 있다. 방산의 기행시에 인용된 역사유적이 역사적 의미 맥락에서 벗어나 하나의 경물로 존재한다는 사실은 시의 독자성에 비중을 높여 그의 작품을 이해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2. 비애의 서정화

방산의 기행시가 보여주는 또 하나의 특징은 서정성이 강하다는 점이

22) 이철희, 「18세기 한중 문화 교류와 유득공의 <이십일도회고시>」, pp.336-338. 참조.

며, 대체로 비애감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하나의 정서로 일관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미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방산이 강진을 왕래한 것은 명승지를 유람하거나 외직의 부임을 위하여 지방을 여행하는 경우와는 달리 세간사를 위해 900리에 가까운 거리를 왕복해야하는 고통스러운 여행이었다. 특히 관직진출에 실패하면서도 끝내 그 꿈을 포기하지 못했던 방산의 입장에서 귀향길은 삶의 굴레와도 같은 것이었으리라 생각된다. 이와 같은 여행의 성격은 그의 작품에 그대로 반영되어 기행시의 새로운 시세계를 보여준다.

다음은 방산이 강진으로 길을 떠나며 지은 「새벽에 호남 길을 떠나며(曉發湖南行)」라는 시이다.

程程十里我思勞	이정표마다 십 리 길, 그 고된 길을 생각하니,
重對寒梅強飲醪	추위 속 매화를 다시 보며 막걸리를 들이킬 수밖에
萬事滄桑餘病骨	桑田碧海의 만사를 겪은 뒤 병이 뼈에 사무치고
此生風樹愴顛毛	風樹의恨이 일어 슬픔은 머리털을 훑날린다.
點看行具晨霜半	행장을 살펴보니 새벽서리에 덮혀 있고
悵別家人冷日高	안 사람과 이별하니 차가운 해가 떠오른다.
滿地饜風兼雪虐	세상은 온통 거친 바람과 눈보라
殷勤更看舊綿袍	저도 모르게 낡은 솜옷에 또다시 눈이 간다. ²³⁾

위 시에는 한 겨울 노년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강진으로 길을 떠나야 하는 방산의 심정이 절실하게 그려져 있다. 추위를 인내하고 있는 매화를 보면 술을 들이키지 않을 수 없는 동병상련의 아픔을 토로하고 있다. 더 나아가 지난 과거의 삶과 부모에 대한 회한은 뼈에 사무치고 머리털까지 미친 듯 훑날리게 한다고 말한다. 몸속의 보이지 않는 ‘骨’과 가장 겉으로 드러나는 ‘毛’를 대구로 구사하여 내면의 고통을 외형과 절묘하게 일치시켜 형상화하였다. 이어서 행장을 덮은 ‘새벽서리’와 여행의 첫 발걸음을 비치는 ‘차가운 해’는 힘겨운 여정을 앞둔 방산의 심정을 암시

23) 卷2, <춘성당기사>, 「曉發湖南行」.

한다. 마지막 구에서 세상을 온통 휘몰아치고 있는 바람과 눈보라는 자신을 둘러싼 암울한 현실을 상징하며, “저도 모르게 낡은 솜옷에 또다시 눈이 간다.” 구절은 여정에서 겪을 추위의 고통만이 아니라 방산의 냉락한 처지가 진솔하면서도 함축적으로 표현되어 있어 감상적 여운을 깊게 남긴다. 시 전체가 주관정서의 표현에 주력하면서, 함축과 여운의미를 구사하는 특징을 보여준다. 이 시에 표현된 비애의 서정은 강진을 향하는 방산의 정서이자 강진 기행시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정조라 할 수 있다.

다음은 여정의 종착지인 강진에 도착하기에 앞서 지은 「탐진현으로 가는 길에서(耽津縣途中)」라는 작품이다.

石門山色縣途連	石門의 산색은 탐진현 官途로 이어지고
澹靄輕風燕子天	얇은 안개, 가벼운 바람에 제비 나는 봄 하늘.
芳草似愁南浦雨	방초는 수심에 찬 듯 南浦의 비가 내리고,
綠楊如夢六朝煙	푸른 버들 꿈꾸듯 六朝의 안개에 쌓여있다.
一年花盡還無賴	한 해의 꽃은 모두 의지할 곳을 잃으니
遠地春殘倍黯然	머나먼 이곳, 쇠잔한 봄은 더 더욱 슬프다.
忽有醒心樵笛響	문득 목동의 피리소리에 마음이 맑아오니
夕陽遙在數家邊	저 멀리 두어 집 위로 석양이 진다. ²⁴⁾

‘石門’은 “학동으로부터 10리 떨어진 곳이다.”라는 주가 붙어있는데, 학동은 방산이 낙향하여 집을 짓고 4년간 머문 곳이다. 기나 긴 여정 끝에 고향 근처에 이르렀건만 고향땅은 친밀하게 그려있지 않다. 오히려 꽃과 풀은 수심에 찬 듯 비에 젖어있고, 푸른 버들은 꿈속인 듯 몽롱한 정취에 싸여있다. 이러한 분위기는 ‘南浦’와 ‘六朝’라는 시어를 통하여 더욱 구체적으로 형상화 되는데, ‘남포’는 전통적으로 이별을 상징해왔으며²⁵⁾, ‘육조’는 중국의 강남에 존멸하였던 여섯 왕조의 화려함만큼

24) 卷1, <한상계금록>, 「耽津縣途中」.

25) ‘南浦’가 이별을 상징한다는 점은 다음 작품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江淹, 「別賦」, “春草碧色, 春水渌波, 送君南浦, 傷如之何.”; 李賀, 「黃頭郎」, “黃頭郎, 撈攏去不歸. 南浦芙蓉影, 愁紅獨自垂.” 王琦注引曾益曰: “南浦, 送別之

나 흥망성쇠의 허무감을 극명하게 상징하는 시어이다. 강진의 항구를 ‘남포’라 칭하기도 했으며²⁶⁾ 강진의 별칭인 ‘金陵’이 六朝의 도읍명과 동일하기 때문에 ‘남포’와 ‘육조’를 환기시켜 이별과 망국의 한을 강진에 투영한 것이다. 이어서 계절의 운행 앞에 무기력하게 시들어가는 꽃을 통하여 유한한 생명에 대한 비애를 앞서 조성한 이별과 망국의 한에 덧붙여진다. 이와 같이 눈앞의 전경과 과거 역사의 공간이 어우러지며 형성된 몽상적, 애상적 분위기는 목동의 피리소리에 의하여 깨어지지만, 역사와 인간에 대한 무상감은 더욱 깊게 표명된다. 무심하게 피리를 불며 귀가하는 목동의 장면은 앞서 고조되었던 작자의 감상조차도 無常한 것으로 만들어 버리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한과 비애의 정조는 역사유적을 활용하여 표현되는 경우가 많은데, 다음의 「소사의 평야를 지나며(過素沙野)」라는 작품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金烏坪前客路遲 금오평을 지나가려니 발걸음은 더딘데
北風吹冷冷侵肌 차가운 북풍은 살갓을 파고든다.
草殘麻貴荒營址 풀 속 麻貴의 황폐해진 진영터
萬曆丁酉, 麻提督貴, 大破倭寇於此[만력년간 정유년에 제독 마귀가 이곳에서 왜구를 크게 이겼다.]
苔沒崔冲古寺碑 이끼에 묻힌 崔冲의 옛 절터 비석
卽高麗追王安宗願刹, 崔冲撰碑文, 今路邊只有古碑[홍경사는 바로 고려시대에 왕을 추모하고 종묘를 안정시키기 위한 원찰인데 최충이 비문을 지었다. 지금은 길가에 옛 비석만 있을 뿐이다.]
嶺外寒砧除酒處 고개 너머 다듬이소리 들리는 곳은 술을 파는 객점,
江南初雪問程時 강남에 내리는 첫눈 속에 길을 묻게 되겠지.
篋中店月橋上²⁷⁾句 상자 속에 들어있는 ‘店月橋霜’의 시구

地.” 참조.

26) 정약용의 「南浦行」(『다산시문집』 卷5)은 다산이 강진의 九十浦에서 뱃놀이를 하며 읊은 작품으로, ‘구십포’가 ‘남포’로 칭해지기도 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盡是行人黯所思 그 모두가 나그네의 그리움을 슬퍼함이라.²⁸⁾

북풍이 몰아치는 드넓은 평야를 건너가는 고통이 앞부분에 표현되어 있고, 결말부분에는 ‘店月橋霜’라는 시구로 방산의 심정을 표현하고 있다. ‘점월교상’은 온정균의 「商山早行」 중 “닭 우는 객점 위로 달이 뜨는 데, 판교 위 인적 위에 서리가 내린다.(雞聲茅店月, 人迹板橋霜)”라는 시구를 지칭한다.²⁹⁾ 나그네의 향수와 고통을 가장 절묘하게 표현한 명구로 손꼽히는 시구이다.³⁰⁾ 상자 속에 있는 온정균의 시구가 바로 소사평야를 지나가는 방산의 상황과 심정임을 말하고 있다.

이 지역에서 방산은 정유재란 때 구원을 온 명나라 장수 마귀의 진영 터와 최충이 쓴 비문이 새겨있는 비석을 시의 소재로 끌어들인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두 유적 사이에는 어떠한 연관성도 없다. 그런데 두 곳 모두 웅장하던 옛 모습이 세월에 묻혀 지금은 황폐한 遺址 속에 풀과 이끼에 묻혀 있어, 역사의 무상함을 보여준다. 이 유적들은 방산의 고독과 그리움 등의 비애를 더욱 고조시키는 역할을 한다. 역사의 무상함은 인생의 덧없음을 절감하게 만들고, 짧은 인생에서의 고통은 더 가슴 아프게 다가오기 때문이다. 역사유적은 그 유적 본래의 역사성보다는 시인의 감정을 촉발시키고, 또 시인의 감정을 대변하는 경물의 하나로 존재한다. 이와 같이 방산의 기행시는 자신의 비애를 서정화하는 분명한 경향성을 보여주어 기행시에 있어서는 독특한 시세계를 창출하였다.

27) ‘上’자는 ‘霜’의 오자로 여겨진다.

28) 卷1, <한상계금록>, 「過素沙野」.

29) 『全唐詩』 卷581, <溫庭筠>, 「商山早行」, “晨起動征鐸, 客行悲故鄉. 雞聲茅店月, 人迹板橋霜. 槲葉落山路, 枳花明驛牆. 因思杜陵夢, 鳧雁滿回塘.”

30) 歐陽脩, 『文忠集』 卷130, <筆說>, “若雞聲茅店月, 人迹板橋霜, 則羈孤行旅流離辛苦之態, 見於數字之中. 至於野塘春水漫, 花塢夕陽遲, 則春物融怡, 人情和暢. 又有言不能盡之意, 茲亦精意刻琢之所得者耶.”

IV. 맺음말

김석준은 「舫山先生詩稿序」에서 “몸소 명소를 찾아다니고 고적들을 모으셨는데, 무릇 산천, 초목, 조수 등 地理誌에 비장되어 있던 것들이 모두 훤히 증빙하여 털끝 하나라도 남기지 않았다.”³¹⁾라고 하였고, 또 “비분한 마음으로 유람함에 이별과 만남의 情이 言外에 넘치었으니, … 詩家의 正響을 얻었다고 하겠다.”³²⁾라고 하였다. 비록 방산의 여행에 대하여 부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지만, 방산 시의 특징적 면모를 지적한 글이라 할 수 있다. 전자가 역사유적을 소재로 택하고 그에 대한 설명을 자주로 기재한 경향을 평한 것이라면, 후자는 자신의 생애에서 비롯된 비애감을 함축과 여운의 미로 구사한 경향을 평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역사지리에 대한 방산의 학문적 관심은 『동환록』이라는 저작을 이루어 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시문학에도 반영되었는데, 이 점은 기존연구에서 지적되었듯이 다산시학을 계승한 면모라고 할 수 있다. 조선 사람은 ‘조선시’를 쓸 것을 선언한 다산은 유득공의 『이십일도회고시』를 예로 들면서 우리나라의 史書와 문헌에서 소재를 취하여 시를 써야한다고 주장하였던 바,³³⁾ 방산이 기행시에서 역사유적을 소재로 활용한 경향은 다산의 ‘朝鮮詩’ 선언을 실천한 하나의 방식이라 할 수 있다.

한편 방산의 기행시는 개인의 주관 정서를 표현하는 서정성이 시문학의 본질이라는 생각을 방산이 지니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방산은 “情은 진실로 사람이 벗어날 수 없는 것이다. … 시는 情 속에 있는 하나의 실체이다. 정이 마음속에 쌓이면 말이 시로 전할 수 없고, 모습과 소리가 시로 전할 수 없는 것이 있겠는가?”³⁴⁾라고 하여 정을 시의 본질로 표명

31) 김석준, 「舫山先生詩稿序」, “身履名區, 蒐羅古蹟, 凡山川草木鳥獸, 地志所秘者, 皆瞭然參證, 靡遺纖毫.”

32) 위의 글, “悲憤遊覽, 離合之情, 溢於言外, 不耽禪悅, 不屑屑立名, 得詩家正響.”

33) 정약용, 『국역 다산시문집』 卷21, 「寄淵兒戊辰冬」.

하였다. 또한 “천고에 詩道를 깨달은 것으로 순임금이 夔에게 명한 ‘詩言志’만한 것이 없다. 志가 느낀 바를 언어로 표현하는 것일 뿐이니, 거기에 무엇을 더 말하겠는가?”³⁵⁾ 라고 하여 기존의 ‘詩言志’說을 ‘志가 느끼는 바(志之所感)’라고 해석하여 ‘감성(感)’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 역사지리를 반영하고자 하는 의식과 정감을 중시하는 문학적 지향이 결합하여 산생한 작품이 바로 방산의 기행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방산의 기행시는 명승지를 유람하거나 공무 등을 위한 여행에서 지어진 기행시와는 확연히 다른 면모를 보여준다. 역사유적에서 유래한 무상감과 자신의 삶에서 유래한 비애감이 결합된 정조의 표현은 우리나라 기행시의 역사적 전개에서 주목해야할 시세계이다.

<參考 文獻>

- 金奭準, 『紅藥樓續懷人詩錄』, 임형택 편, 李朝後期閩巷文學叢書, 여강출판사, 1986.
 吳世昌 著, 동양고전학회 역, 『국역 槿域書畫徵』, 시공사, 1998.
 柳得恭, 『冷齋書種』, 국립중앙도서관.
 ——— 著, 실시학사고전문학연구회 역, 『국역 이십일도회고시』, 푸른역사, 2008.
 윤정기, 『舫山先生遺稿』, 『다산학단문헌집성』3,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08.
 ———, 『東環錄』, 『다산학단문헌집성』4,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08.
 ———, 『舫山遺稿』, 국립중앙도서관.
 丁若鏞, 『국역 다산시문집』, 민족문화추진회, 1994.
- 박인호, 「동환록에 나타난 윤정기의 역사지리인식」, 『조선시대의 사회와 사상』, 조선사연구회편, 1998.

34) 卷2, <춘성당기사>, 「庚申初…春南國紅豆帖」, “情, 固人之所不能免也… 詩亦情中之一物也, 情蘊於中, 言之所不能形聲之所不能接於詩乎.”
 35) 윤정기, 「醉綠堂詩集序」, “千古悟得詩道, 無如帝舜之命夔云, 詩言志. 志之所感, 形諸言語而已, 又何加焉.”

- 박준호, 「방산 윤정기 문학연구」, 계명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92.
- , 방산 윤정기의 금릉죽지사에 대하여, 『한국학연구』 8집, 계명대, 1992.
- , 「방산 윤정기 시세계의 한 국면-회고시를 중심으로」, 『한문교육연구』 13집, 한국한문교육학회, 1999.
- 이경수, 『漢詩四家の 清代詩 수용 연구』, 태학사, 1995.
- 이신영, 「방산 윤정기의 회고시에 대한 고찰」,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
- 이철희, 「18세기 한중 문학 교류와 유득공의 <이십일도회고시>」, 『동방한문학』 38집, 동방한문학회, 2009.
- , 「<방산선생유고>해제」, 『다산학단문헌집성』 3,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08.
- 이해준, 「윤정기와 동환록」, 『동환록』, 원주문화사, 1993.

Abstract

*Two dispositions from Bangsan(昉山) Yoon Jungki(尹廷琦)'s kihaeng si(紀行詩) - Historical relics as scenery and Lyrical expression of pathos / Lee Chul Hee**

Bangsan Yoon Junki, Dasan(茶山) Jung Yakyong(丁若鏞)'s grandson, spent his life traveling Korea and published <DongHwanLok(東環錄)>, which is an old map of Korea, and also wrote several HweGo Si(懷古詩), a poem which dealt with past history.

This report is based on Bangsan's currently existing poems to uncover the truth that it was misunderstanding that he traveled throughout Korea for his entire life. Through this study of Bangsan's poetry collection, there were two dispositions which support the misunderstanding part of uncovering the truth.

First, he used historical sites in his poem for rhyming couplet, which shows similar form from HweGo Si, but those sites are only used for background purpose. Second, exoticism of sorrow is well explained throughout the poem, and also historical sites kind of play a role in his poems to setup a subjective sentiment.

These characteristics of using historical sites in his poems to setup a background shows his belief of JoSunSiLon(朝鮮詩論), which means Koreans should be writing poems about Korea only, and also supporting lyricism throughout his work.

【Key words】 Yoon Jungki(尹廷琦), DongHwanLok(東環錄), kihaeng si(紀行詩), HweGo Si(懷古詩), Historical relics, pathos, Jjeong yak-yong(丁若鏞), Dasan School

투고일 : 11월 10일, 심사일 : 11월 18일, 게재확정일 : 12월 5일

* Daedong Institute For Korean Studies in Sungkunkwan University, Research Professor / silsi94@hanmail.net